

치루이(奇瑞·Chery)자동차, 누적생산량 300만대 달성 예정

작성자: 중국 권역별·성별 연구단 박진희 연구원

■ 안후이(安徽)성의 대표기업인 치루이자동차가 올 7월에 자동차 누적생산량 300만대를 돌파할 예정이다.

– 1997년에 공장을 설립한 치루이자동차는 2007년 8월과 2010년 3월에 각각 100만대, 200만대 생산을 돌파하며 성장해 왔음.

– 치루이자동차의 생산규모는 상하이 GM, 베이징현대와 같은 글로벌 합자기업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나, 중국 독자브랜드로서는 처음으로 300만대 생산(누적량)을 달성한다는데 의의가 있음.

표 1. 2009년 중국 자동차회사별 생산량 순위

순위	회사명	생산량(만대)	비고
1	상하이(上海)자동차	276.4	합자운영(VW,GM)
2	이치(一汽)자동차	194.3	합자운영(VW,GM)
3	동펑(東方)자동차	190.1	합자운영(닛산)
4	창안(長安)자동차	190.1	합자운영(포드)
5	베이징(北京)자동차	127.1	합자운영(현대)
6	광저우(廣州)자동차	68.9	합자운영(혼다)
7	치루이(奇瑞)자동차	50.9	독자운영
8	비야디(比亞迪)자동차	42.8	독자운영
9	화천(華晨)자동차	35.8	합자운영(BMW)
10	장화이(江淮)자동차	33.7	독자운영

자료: 한국자동차공업협회

■ 치루이자동차의 성장은 저렴한 가격대를 내세워 내수 및 신흥국 시장을 공략한데서 비롯되었음.

– 대표 차종인 QQ3은 인도 타타 나노(TATA Nano) 다음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자동차로, 소형차급에서 중국 내수 판매 1위임.¹⁾

- 2001년 시리아에 첫 수출을 한 이래, 주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전세계에 1천개 서비스망과 16개 생산기지를 구축함.
- 치루이의 올해 1/4분기 수출량은 4.11만대로 동기대비 88.99% 증가하였으며,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량(6.75만대)의 1/2이상을 차지함. 또한 4월에 중국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수출 50만대(누적량)를 달성하였음.
- 치루이자동차는 브라질, 스페인 등지에서 해외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, 중국정부 7대 신흥전략산업 중 하나인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야디(比亞迪·BYD)의 뒤를 이어 전기차를 생산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,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, 브라질에서 연간 15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임.
- 또한 12·5 계획 기간 동안 자체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1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200만대까지 확대하고 신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판매량을 연간 5만대까지 늘릴 예정임.

1) QQ3는 산뜻한 디자인으로 2003년 출시되자마자 젊은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, 2010년에 157,436만대를 판매하며 소형차급에서 중국 내수 판매량 1위를 유지함.